

## 가족의 정을 이어주는 PC통신



한국PC통신(주)  
대표이사 신동호

### 정보화 사회와 가족 관계의 변화

누구나 한번쯤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의 가족 생활은 어떠할까 상상해 봤을 것이다. 분명 21세기의 가족 생활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띄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변화의 조짐은 이미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사회의 기초 단위이자 가장 개인적인 삶의 장으로 여겨온 '가족'의 개념 및 관계도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인류의 역사상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여러 변화가 있었듯 오늘날의 정보통신 기술 역시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TV나 영화의 영향택인지 과학기술의 발달은 가족 관계에 있어 단절과 세대간의 불신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은 컴퓨터에 몰두하는 자녀들이 음란물을 보지나 않을까 혹은 학업에 방해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곤 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들의 의심과 걱정을 기성세대의 편견이라고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해 세대간 단절은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걱정이 전혀 근거없는 바는 아니나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과 각종 편리를 포기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달은 가족에게 새로운 유대의 계기로 작용될 수도 있다. 이미 하이텔과 같은 PC통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홈뱅킹이나 홈쇼핑 등은 가정 생활에 여유를 가져다 주었고, 재택 교육이나 재택 근무도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서서히 실현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곧 눈앞에 건설될 사이버홈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 21세기 사이버홈을 가꾸는 새로운 매체

컴퓨터통신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의 새로운 문명이 싹트기 전 우리의 가족관계를 규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매체는 바로 TV와 라디오라는 단방향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이었다.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가족 단위의 핵가족 시대로 재편성되면서 TV와 라디오에서 유포되는 관념, 언어습관, 유행 등은 곧바로 안방과 거리에서 재현됐다. 일과 가정생활이 분리되고 가족간의 유대가 점점 약해진 가운데 TV는 식사시간을 제외한 모든 저녁 시간 동안 가족들을 붙들어 댔다.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한 PC통신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이러한 TV시대로부터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PC통신이 TV의 위력에 대항하기에는 여러모로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쌍방향이면서 시공을 초월한 PC통신의 무한한 잠재력은 가까운 미래에 TV와 대등한 매체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PC통신은 우리 가정 패턴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첫째, 사람들에게 정신적,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TV시대에 보편적이었던 일과 생활의 분리가 PC통신의 등장과 재택근무의 활성화를 통해 재결합됨으로써 가정은 다시금 사람들에게 있어 유일무이한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거의 모든 일들이 통신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사람들이 집밖으로 나오는 일은 크게 줄어들고, 말 그대로 '시간이 돈'인 현대사회에서 시간도 절약하고 기름값도 절약하고 차가 막혀 짜증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둘째, 가족간의 물리적,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여주게 될 것이다. PC통신에서는 서울에서 부산, 제주, 아니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과도 눈앞에서 대면할 수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출생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일터를 갖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가족의 의미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PC통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흩어진 가족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간의 보다 진솔한 대화가 가능해져 그만큼 가족관계도 보다 친밀해질 것이다.

셋째,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족들 서로가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많아지니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주 보게 되면 더 친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사실 이처럼 PC통신을 활용해 가족간의 유대가 돈독해진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하이텔 이용자 장동희(하이텔 아이디 : CeCil)씨는 거제도에 사는 친정아버지 장병천(zxc12zx)씨와 전자우편을 통해 매일 소식을 주고 받고 있으며, 외손녀인 지영이는 할아버지와 주고받는 전자우편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한다. 다른 예로 지방 출장이 잦은 하이텔 이용자인 박병수(pjh005)씨는 지방에 내려갈 때 마다 노트북을 들고가서 아들인 정훈(pjh006)군과 전자우편과 대화방에서 집안 소식을 듣고, 언제든지 필요한 얘기를 나눈다. 또 가정주부 정석희(soyow)씨는 자녀인 유리나(yowli)양과 상민(yowmin)군을 꾸중할 때도 전자우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차분해지므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 구성원들이 PC통신을 통해 자주 접촉함으로써 오히려 가족간의 친밀도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이버 가족의 출현

또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나 노인 문제를 PC통신을 활용해 풀어나갈 수도 있다. 실제로 하이텔에는 다양한 청소년 상담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PC통신이 가지는 익명성으로 인해 더욱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기 때문에 상담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이 카운셀링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하이텔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로방'과 14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꿈동산' 서비스가 있는데, 이 두 서비스는 현재 핵가족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가족관계, 즉 사이버가족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한 원로방 회원이 꿈동산 어린이에게 전하기 위해 꿈동산 게시판에 띄운 다음의 말은 한번 음미해 볼 만하다.

“PC통신을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숫자도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중에는 여러분과 같은 손자, 손녀와 대화를 하시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특별히 친한 친구가 되시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말인데, 원로방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꿈동산 어린이들이 특별히 PC통신을 통해 서로가 친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친구가 정이 깊어지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로 모셔도 되겠지요. 원로방의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을 모두 찬손자 친손녀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여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PC통신이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만일 가족 구성원들이 현재의 TV를 보는 것처럼 각각 PC통신에만 열중한다면 가족의 의미는 사실상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PC통신이 가져다 준 정신적, 물질적 여유를 우리의 가족관계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아닌가 싶다.